

병렬코퍼스를 활용한 번역평가 연구:
프랑스 소설 『모데라토 칸타빌레(*Moderato Cantabile*)』의
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고빈도 명사를 중심으로*

조준형 · 이영훈** · 계명훈 · 고여림 · 김보현 · 김지은 · 이상인***
(고려대)

1. 서론

번역 현상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번역학에서 도구로서의 코퍼스 활용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¹⁾ 안동환 역

* 본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2-A00103).

** 교신저자: 이영훈,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erasme@korea.ac.kr

*** 본 논문은 공동연구의 결과로 연구의 기획 및 진행 책임을 교신저자가 맡았고, 제1저자가 논문 집필을 주도하였으며, 여타 공동저자들은 연구 진행에 적극 참여하였다.

1) 일반적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된 캐나다 국회의사록을 대상으로 한 Hansard Corpus가 최초의 병렬코퍼스로 알려져 있다. 그 외, 영어와 함께 18개의 유럽어 번역 텍스트로 구성된 Multext와 영어를 포함한 7개의 동유럽어 번역 텍스트로 이루어진

(2008: 17-38)과 박기성 역(2009: 62-77)에 따르면 1980년대 기디온 투리(Gideon Toury)가 번역학에서 기술적 접근법을 도입하면서 순수 번역학에서 응용 번역학으로의 전환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후 모나 베이커(Mona Baker)는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도구로서의 코퍼스의 활용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오늘날 번역학, 대조 언어학, 번역 교육, 대조 용어학, 사전학 및 자동번역 등에서 다국어 코퍼스²⁾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곽성희(2000)와 이영옥(2000) 등의 연구 이래로 코퍼스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어 관련 연구에서도 영어권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언어(collocation)의 자동분석을 주제로 한 윤애선(2002)의 연구와 불한 병렬코퍼스 구축과 언어 교육에 있어서의 활용 예를 보여준 김명관(2007)의 연구가 있다. 그런데 연구 방법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대상이 주로 병렬코퍼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연구 주제도 자연히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번역 과정에 대한 연구나 두 언어 간의 비교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비교코퍼스를 활용해서 한국어 번역 텍스트에 나타나는 ‘격식성’ 문제를 다룬 김혜영 외(2010a), 불한 번역텍스트의 문체적 특성을 논의한 김혜영 외(2010b) 그리고 영한 병렬코퍼스를 기반으로 한국어의 특징을 기술한 김정우(2011)와 같은 최근의 연구들은 국내에서도 코퍼스 기반 번역학 연구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코퍼스는 서로 다른 원문을 가진 한국어 번역 텍스트를 묶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의 원문을 저본으로 하는 여러 개의 한국어 번역 텍스트들을 하나의 코퍼스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코퍼스는 최근에 번역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번역비평 및 번역평가 작업에 기초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평가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Multext-East는 유럽어를 중심으로 구축된 대표적인 대규모 다국어 코퍼스이다. Ide & Véronis(1994)와 Erjavec(2004) 참고.

2) 다국어 코퍼스는 일반적으로 비교코퍼스(comparable corpus)와 병렬코퍼스(parallel corpus)로 구분된다. 비교코퍼스가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다국어 텍스트를 모아놓은 것이라면, 병렬코퍼스는 번역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한다. Baker(1995: 230-235)와 Salkie(2000: 180) 참고.

이에 본고는 프랑스 소설 『모데라토 칸타빌레(Moderato Cantabile)』의 한국어 번역본들로 구성된 코퍼스를 기반으로, 고빈도 명사 어휘들의 통계적 특징들을 관찰하면서 번역 비교 평가에서 코퍼스를 어떤 식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보이고자 한다. 본고의 주요 목적은 통계 계산의 결과물을 토대로 각 번역본들을 비교하고, 기존의 번역평가 연구와 통계에 기반한 연구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각 번역본에 대한 전반적인 번역 품질 평가는 논외로 한다.

2. 연구 배경

근대 한국 문학의 형성은 외국 문학작품들의 번역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방 이전 시기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외국문학 작품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왔다. 그런데 해방 이전의 초창기 번역들은 일본어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번역은 중역과 변안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해방 이후에도 다양한 서구 명작들을 대상으로 많은 번역들이 양산되어 왔으나, 일본어를 통한 중역과 표절번역 그리고 비전문가들의 졸속한 오역 등의 부정적 번역 관행에 대한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국내에 소개된 번역본들의 비교·평가를 통해 번역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훌륭한 번역본들을 발굴하며, 새로운 번역의 지평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먼저 ‘영미문학연구회’가 「영미 고전문학 번역평가 사업: 번역문화 혁신을 위한 현황 점검」이라는 제목 하에 2004년 1월과 2005년 8월 총 2차에 걸쳐 수행한 번역평가 작업은 번역문화 혁신을 위해 영미권 ‘명저’의 번역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첫째 번역의 실상을 진단할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둘째 번역된 작품의 수준을 검토하여 상대적으로 나은 번역본을 독자에게 선별해주는 데 중점을 둔 사업이었다. 본 연구 사업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번역평가 사업으로 지금까지의 잘못된 번역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양질의 번역본을 선별하려는 선구적인 작업이었다.

다음으로 2008-2011년에 ‘고려대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연구단’이 수행한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연구』(이하 KU-TQA³⁾)는 앞서 언급했던 ‘영미

고전문학 번역평가 사업'을 생산적으로 비판·발전시킨 사례에 해당한다. 해방이후 국내에 번역 출판된 프랑스 명작소설 한국어 번역본들에 대해 번역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번역품질 평가 그리고 번역용례사전 편찬 작업을 목표로 한 본 연구 프로젝트는 국내 프랑스 소설 번역 작품에 대한 문헌서지 작업을 바탕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진 번역 작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검증을 목적으로 삼았으며, 여기서 주안점을 둔 부분은 '번역 품질 평가' 작업과 체계적 평가 이론의 정립이었다(이영훈 2010).⁴⁾

KU-TQA는 번역평가를 위해서 프랑스 단편소설, 중편소설, 장편소설을 선별해서 프랑스어 원문과 국내에 번역된 모든 번역본들을 조사 및 수집하였고, KU-TQA 연구단에서 마련한 엄밀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이 번역본들의 번역평가를 시행하였다.⁵⁾ 특히 중요한 것은 번역평가 대상이 된 작품들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번역평가에 있어서 병렬코퍼스의 적극적인 활용의 예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렇게 구축된 KU-TQA의 코퍼스는 단편소설 48편, 중편소설 33편, 장편소설 6편 그리고 그 해당 번역본들로 구성된 대규모 병렬코퍼스라는 측면에서 코퍼스 기반 번역평가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⁶⁾

그러나 병렬코퍼스의 본격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KU-TQA의 번역평가 작업은 매우 기초적인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KU-TQA는 프랑스 명작소설의 한국어 번역본 평가를 위해 특별한 분석도구를 이용해서 코퍼스의 분석을 시도했다기보다는 단순히 컴퓨터에 저장된 번역 텍스트를 연구자들이 직접 검토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병렬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번역 연구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번역 자료를 추출하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추출된 번역어들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내포한다. 따라서 KU-TQA은 병렬코퍼스의 기술적인 응용 연구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고 할 수 있다.

3) 약어 KU-TQA는 고려대(Korea University) 번역과레토릭연구소에서 수행된 번역 품질 평가(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연구를 뜻한다.

4) 본 연구프로젝트의 개관은 KU-TQA 홈페이지(<http://www.tqa.or.kr>) 참조.

5) 번역본의 선별과정과 번역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이영훈(2010) 참조.

6) KU-TQA 코퍼스는 하나의 원문과 여러 개의 번역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관점에서 따라서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KU-TQA 코퍼스는 저작권 문제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는 KU-TQA 병렬코퍼스 중 하나인 프랑스 소설 『모데라토 칸타빌레』와 3편의 한국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단순한 디지털 텍스트 자료로서의 병렬코퍼스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언어 데이터베이스로서 병렬코퍼스가 기존의 번역평가 작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더욱이 이후에 소개될 통계 기법을 통해 축적된 자료들은 번역평가 작업의 보조 자료뿐만 아니라, 자동번역과 같은 보다 넓은 의미의 응용 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및 분석 코퍼스

3.1. 연구 방법

본고는 병렬코퍼스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프랑스 언어통계학의 한 갈래인 ‘텍스트어휘측정법’(Textométrie)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텍스트어휘측정법은 프랑스 언어통계학의 선구자들 중 한 명인 피에르 기로(Pierre Guiraud)의 『언어통계학의 문제와 방법들(Problèmes et méthodes de la statistique linguistique)』(1960)에 소개된 통계 기법⁷⁾을 토대로 발전한 프랑스의 ‘텍스트 통계학’(statistique textuelle)에 근거하는 통계 기법이다(Lafon 1984; Lebart & Salem 1994).

텍스트어휘측정법은 코퍼스를 구성하는 어휘들의 빈도수를 계산하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어휘들의 출현 양상, 다시 말해서 맥락 분포(distribution contextuelle), 빈도 특이성(spécificité), 공기어(cooccurrence), 반복 어구(segments répétés)와 같은 다양한 통계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그 결과는 연구자들이 코퍼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번역 현상을 설명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⁸⁾

7) Guiraud(1960)는 특정 기준(연도별, 분야별, 등등)에 의거해서 코퍼스 분할하고 이렇게 분할된 코퍼스를 기반으로 어휘 목록 작성과 빈도수 계산, 최종적으로 각 어휘 빈도 변화의 특이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계 기법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

8) 텍스트어휘측정법의 개념 및 활용 예는 Zimina(2004), Cho(2010), 조준형(2011) 참조.

텍스트어휘측정법에 의한 『모데라토 칸타빌레』의 한국어 번역본들의 분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KU-TQA 코퍼스는 원문과 번역본이 문단 단위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섬세한 분석을 위해서 각 텍스트를 문장 수준으로 다시 정렬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이하 정렬된 각 맥락을 ‘번역 맥락’(contexte traductionnel)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어 원문과 각 번역본이 연결된 3개의 병렬코퍼스가 구축되었다.

문장 수준으로 번역 정렬된 코퍼스에서 한국어 번역본은 형태소분석⁹⁾이 된 텍스트를 사용하였는데, 한국어의 교착어적 특성이 형식적 차원에서 한 어휘를 중심으로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변이형들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명사 ‘슬픔’은 프랑스어의 경우, ‘tristesse(s)’처럼 복수 표지 ‘-s’가 붙거나 그렇지 않는 두 가지 형태만이 존재하지만, 한국어 ‘슬픔’은 문장 내에서 다수의 조사와 결합하면서 코퍼스 분석도구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간주하는 수많은 ‘슬픔’의 변이형들(예를 들어, ‘슬픔’, ‘슬픔은’, ‘슬픔이’, ‘슬픔으로’ 등)를 산출한다. 따라서 ‘슬픔’ 자체에 대한 정확한 통계 정보를 추출하기가 불가능해진다.

3.2. 분석 코퍼스

본고에서 병렬코퍼스로 사용한 프랑스 중편소설인 마르그리트 뒤라스(Marguerite Duras)의 『모데라토 칸타빌레』와 한국어 번역들은 KU-TQA 코퍼스에서 추출한 자료들이다. 이 작품은 KU-TQA 프로젝트의 2년차 연구 대상이 된 프랑스 명작 중편소설들에 포함된 것으로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 Duras, Marguerite (1958) *Moderato Cantabile*, Paris: Editions de Minuit, Collection «Double».
- 이환 역 (1969) 『모데라토 칸타빌레』, 서울: 계몽사, 346-405. (이하 <이환69>)
- 김인환 역 (1978) 『모데라토 칸타빌레』, 서울: 삼성출판사, 386-439. (이하 <김인환78>)

9) 한국어 텍스트의 형태소분석은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개발된 ‘지능형 형태소분석기’를 사용하였다.

- 정희경 역 (2001) 『모데라토 칸타빌레』, 서울: 문학과지성사, 1-140. (이하 <정희경01>)

KU-TQA 연구단의 『모데라토 칸타빌레』 한국어 번역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969년 이환에 의해 이 작품이 처음 번역된 이후 5명의 역자에 의해 총 7종의 번역이 이루어졌다. KU-TQA 연구단은 동일 역자의 재출간본(이환, 삼진사, 1976), 상대적으로 번역 오류가 많거나(홍성희, 지문사, 1986), 역자의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는(하재기, 청산사, 1979; 리을 1995) 4종의 번역본을 제외한 위의 3종만을 최종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들 3종의 번역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끝으로, 전통적인 분석방법인 텍스트의 직접적인 비교·검토에 의해서 상기의 번역본들의 번역품질을 비교한 김화영(2011)의 연구는 코퍼스에 기반하여 통계 기법을 활용한 본고의 분석에 참조할 만하다. 김화영(2011)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환69>와 <김인환78>은 프랑스 문학사조로서 원작이 속한 누보로망(Nouveau Roman)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번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문체적인 특징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정희경01>은 누보로망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진 시기에 번역되어 원작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문체적인 측면에서도 전자의 두 번역에 비해 세련되고 감각적인 번역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모데라토 칸타빌레』의 세 번역본에 대한 김화영(2011)의 면밀한 분석을 염두에 두고, 통계 기법에 의거한 우리의 방법론이 세 번역본의 특징들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4. 코퍼스를 활용한 번역평가

4.1. 번역 맥락 유형

문장 수준으로 정렬된 병렬코퍼스에서 번역 맥락은 번역 텍스트에 상관없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프랑스어의 한 문장이 한국어 두 문장으로 번역

되거나, 반대로 프랑스어 두 문장이 한국어 한 문장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심지어 여러 문장들이 서로 교차되어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각 번역본의 번역 맥락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1〉 『모데라토 칸타빌레』에서 각 번역본의 번역 맥락 유형

	1:1	1:2/2:1	1:0/0:1	복합대응
이환69	1,216	355	26	10
김인환78	1,166	370	7	91
정희경01	1,266	350	1	58

전체적으로 세 번역본 모두 번역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환69>에서는 번역 누락을 의미하는 1:0/0:1 유형이 다른 번역본에 비해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김인환78>과 <정희경01>은 복합대응이 많은데, 번역 과정에서 원문의 문단 혹은 문장의 구조를 무시한 번역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⁰⁾

4.2. 통계적 특징

병렬코퍼스 분석을 위해 우리는 파리 3대학 SYLED (SYstèmes Linguistiques, Enonciation et Discours) 연구소에서 개발한 ‘mkAlign2’를 분석 도구로 사용하였다. 먼저, 분석을 위해 mkAlign2는 분할기호(délimiteurs)¹¹⁾를 기준으로 코퍼스를 ‘어절’ 단위로 분할한다. 이때, 동일한 문자열을 가진 어절은 하나의 ‘어휘’가 되며, 이 어휘들의 집합이 사용된 코퍼스의 어휘목록을 구성한다. 프랑스어 원문과 형태소 분석된 한국어 번역본들의 계량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0) Véronis & Langlais(2000)에 따르면, 실용 텍스트보다는 문학 텍스트에서 이러한 복합대응 번역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11) 분석도구 mkAlign2는 분할기호로서 ‘...;!/?_'"()[]{}\$%*!<=>+##’와 같은 구두기호를 사용한다.

〈표 2〉 『모데라토 칸타빌레』의 통계 정보

	어절수	어휘수	단발어수	최대빈도수	최대빈도어
프랑스어	19,291	2,848	1,590	675	de
이환69	26,459	2,577	1,212	1,174	다
김인환78	29,009	2,774	1,236	1,217	이
정희경01	29,359	2,759	1,269	1,263	이

전체적으로 한국어 번역본의 어절수가 프랑스어 원문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어휘수는 프랑스어 원문이 번역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큰 차이는 아니지만 최소한 『모데라토 칸타빌레』에서는 한국어 번역본보다 프랑스어 원문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휘수가 많은 만큼 ‘단발어’(hapax legomenon) 수도 원문에서 높게 나타난다. 한편 <이환69>에서는 종결어미인 ‘-다’, 나머지 두 번역본에서는 조사 ‘이’가 최대빈도어로 관찰된다.

4.3. 어휘색인과 빈도수

분석도구 mkAlign2는 어절 단위로 해체된 코퍼스에서 동일한 문자열을 가진 어휘들을 출현횟수, 다시 말해서 빈도수와 함께 하나의 목록을 생성한다. 이 목록을 해당 코퍼스의 ‘어휘색인’이라고 부른다. 이 어휘색인을 비교하면 원문과 번역본과의 관계 그리고 번역본들 간의 어휘 차원에서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실질적인 비교를 위해서 전치사, 조사, 대명사, 어미 등과 같은 기능어들을 제외한 명사만을 고려해서 아래와 같은 어휘색인을 작성할 수 있다.¹²⁾

12) 형태소 분석이 된 한국어 번역본의 경우는 용언(用言)의 어간이 어휘색인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사 ‘생각하다’의 ‘생각.’은 명사 ‘생각’과 동일한 문자열을 가지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어휘로 통합되어 어휘색인에 표시된다. 본고에서 사용된 분석도구인 mkAlign2는 이러한 한국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며, 따라서 명확한 의미는 맥락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3〉 『모데라토 칸타빌레』의 어휘색인

원문		이환69		김인환78		정희경01	
어휘	빈도	어휘	빈도	어휘	빈도	어휘	빈도
enfant	151	테바레드	144	소년	173	여자	329
desbaresdes	148	안느	137	테바레드	146	아이	206
anne	138	소년	129	안느	141	안	180
homme	67	사람	82	부인	100	테바레드	144
fois	66	소리	75	사람	95	사람	100
chauvin	58	손	67	소리	80	남자	87
mer	56	부인	67	손	71	카페	86
temps	53	쇼뱅	57	남자	64	소리	73
vin	52	사나이	56	카페	64	선생	71
patronne	47	마담	54	아이	62	쇼뱅	59
ville	43	입	51	쇼뱅	62	피아노	57
yeux	38	아이	50	마담	61	엄마	57
dame	35	카페	45	술	60	번	56
café	34	술	45	생각	51	부인	56
mains	31	몸	40	선생	48	생각	51
verre	31	피아노	40	피아노	45	여주인	51
soir	29	눈	39	입	44	시간	49
femme	29	여인	39	손님	43	눈	48
giraud	28	번	39	어머니	42	길	34
mademoiselle	28	주인	37	몸	42	이야기	34
heure	27	밤	37	눈	41	밤	34
piano	27	여자	36	날	41	술	33
comptoir	26	선생	33	주인	40	잔	32
jour	26	시간	33	번	40	포도주	32
nuit	26	집	33	여자	39	도시	31
mère	26	남자	31	밤	39	카운터	30
hommes	25	말씀	31	거리	38	사내	29
main	24	거리	30	시간	38	몸	29
boulevard	24	대답	30	여인	36	손님	28

sonatine	23	잔	28	집	34	집	28
table	21	어머니	28	사내	33	날씨	27
chose	21	카운터	26	말씀	30	저녁	27
visage	20	얼굴	26	카운터	28	정원	26
tête	20	창문	24	날씨	27	입	25
habitude	20	손님	24	창문	26	얼굴	25
porte	20	정원	24	테이블	26	날	24
jours	20	날씨	23	잔	26	미소	22

<표 3>은 프랑스어 원문에서 20번 이상 출현하는 명사를 분류한 것이다. 37개의 프랑스어 고빈도 명사가 나열된 어휘색인에서 한국어 어휘색인 역시도 37개의 고빈도 명사를 포함하고 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어휘들의 중의적인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빈도수를 가진 프랑스어 어휘에 대응될 수 있는 한국어 명사들도 각 번역본에서 높은 빈도 서열을 보이고 있다. 비록 해당 프랑스어 어휘들과 한국어 어휘 사이의 빈도수 차이는 크지만,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 번역본 전체에서 커다란 편차 없이 나타나고 있다.¹³⁾ 물론 한국어 번역본 내에서는 동일한 명사들이 서로 비슷한 빈도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어휘색인 분석

각 번역본이 유사한 어휘 유형과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환69>, <김인환78>은 ‘소년’, ‘마담’과 같은 약간은 예스러운 어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번역시기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정희경01>의 어휘목록에서는 고어풍의 어휘들이 나타나지 않으며, ‘아이’, ‘여주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보다 현대화된 느낌의 어휘들이 사용되고 있다.

13) 번역 대응가능성이 있는 프랑스어 명사와 한국어 명사 사이의 빈도수 차이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다. 가장 큰 원인들 중 하나는 두 언어 사이의 글쓰기 방식 및 문체, 문법적 차이에서 야기된다. 빈도수에서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고유명사에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특징은 여성과 관련된 어휘들에서 <이환69>/<김인환78>이 ‘마담’, ‘여자’, ‘여인’, ‘부인’, ‘여주인’ 등 여러 가지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정희경01>에서는 ‘여자’, ‘여주인’, ‘부인’ 세 어휘만이 출현하고 있다. 어휘색인에서 이에 대응될 수 있는 프랑스어 어휘로 ‘dame’, ‘femme’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한국어 어휘들의 빈도수의 합(예를 들어 <정희경01>에서 ‘여자’, ‘여주인’, ‘부인’ 세 어휘의 빈도수 총합은 $F=436$ 이다)이 프랑스어 ‘dame’($F=35$)¹⁴⁾나 ‘femme’($F=2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빈도수만으로 이들 한국어 어휘들이 프랑스어 ‘dame’와 ‘femme’ 두 어휘만의 번역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이환69>/<김인환78>의 어휘색인은 ‘술’이라는 어휘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정희경01>에서는 ‘술’과 ‘포도주’가 동시에 발견된다. <표3>의 프랑스어 어휘색인에서 ‘술’ 혹은 ‘포도주’와 번역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어휘는 ‘vin’이며, 다른 프랑스어 어휘는 관찰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희경01>에서 ‘술’($F=33$)과 ‘포도주’($F=32$)의 빈도수 합이 원문의 ‘vin’($F=52$)의 빈도수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희경01>은 ‘vin’을 ‘술’과 ‘포도주’로 구분해서 번역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정희경01>이 특별한 이유에서 ‘vin’을 구별해서 번역했다고 하면, 분명 전자의 두 번역본과는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의 어휘색인에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텍스트어휘측정법의 다른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4.4.1. ‘vin’의 번역 전략 분석

발행 시기 및 어휘색인에서의 어휘 특징을 고려하면, 『모데라도 칸타벨레』의 세 번역본은 한편으로 <이환69>/<김인환78>, 다른 한편으로 <정희경01>의 대비 구조를 상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vin’의 번역과 관련해서 전자의 두 번역본에서는 ‘술’ 이외에 다른 어휘는 관찰되지 않으며, <정희경01>은 ‘vin’을 ‘술’과 ‘포도주’를 구분해서 번역을 하고 있다. 빈도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번역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14) F 는 코퍼스 내에서 해당 어휘의 전체빈도수를 가리킨다.

- <이환69> : ‘술’(F=45)
- <김인환78> : ‘술’(F=60)
- <정희경01> : ‘술’(F=33)/‘포도주’(F=32)

<김인환78>에서 ‘술’의 빈도수는 <정희경01>의 ‘술’/ ‘포도주’ 전체빈도수와 거의 비슷한데, <이환69>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코퍼스 전체 어휘색인을 살펴보면, ‘포도주’의 출현은 <이환69>에서 4번, <김인환78>에서 5번 나타난다. 한편 프랑스어 원문에서 ‘vin’(F=52) 이외에 ‘술’ 혹은 ‘포도주’로 번역될 수 있는 어휘는 확인되지 않는다.

1) 어휘 빈도 변화 조사

병렬코퍼스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개의 ‘하위 부분’으로 분할해서, 각각의 하위 부분에서 어휘들의 빈도 변화를 관찰하면, 어휘들의 번역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모데라토 칸타빌레』는 전체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을 하나의 하위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 하위 부분에서 대상 어휘들의 빈도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자.

<표 4> 『모데라토 칸타빌레』에서 ‘vin’, ‘술’, ‘포도주’의 부분빈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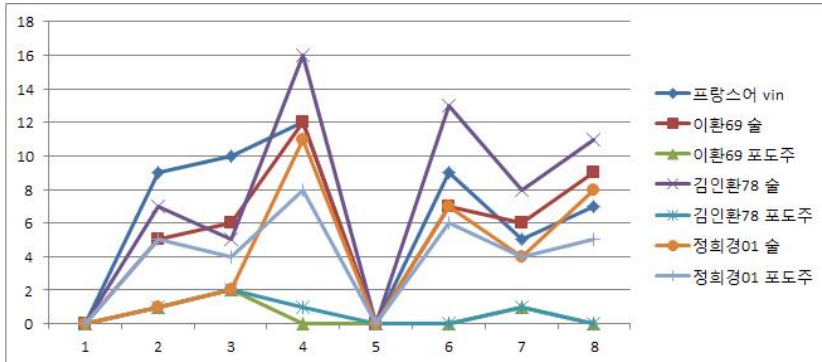
		0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프랑스어	vin	0	9	10	12	0	9	5	7	52
이환69	술	0	5	6	12	0	7	6	9	45
	포도주	0	1	2	0	0	0	1	0	4
김인환78	술	0	7	5	16	0	13	8	11	60
	포도주	0	1	2	1	0	0	1	0	5
정희경01	술	0	1	2	11	0	7	4	8	33
	포도주	0	5	4	8	0	6	4	5	32

<표 4>에서 나타나는 각 어휘들의 ‘부분빈도수’¹⁵⁾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적

15) 한 어휘가 코퍼스 전체에서 출현하는 횟수를 ‘전체빈도수’라고 한다면, 각 하위 부분에서의 출현 횟수를 ‘부분빈도수’라고 부른다. 부분빈도수는 소문자 f로 표시한다.

으로 세 번역본 모두 프랑스어 원문에서 ‘vin’의 빈도 변화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빈도 변화 그래프(<그림 1>)를 보면 더 명확하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vin’, ‘술’, ‘포도주’의 부분빈도수 변화



프랑스어 원문에서 ‘vin’은 특히 03-04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 4>를 보면, ‘포도주’라는 어휘가 <이환69>/<김인환78>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03 부분에서 2번 04 부분에서 1번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거의 무시해도 될 수준이다. 반면, <정희경01>에서는 ‘포도주’가 ‘술’과 마찬가지로 05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하위 부분 전체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희경01>은 특정 부분이 아닌 텍스트 전체에서 ‘술’과 ‘포도주’를 구분해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희경01>의 차별화된 번역 전략을 살피기 위해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술’과 ‘포도주’ 두 어휘를 중심으로 함께 나타나는 어휘들을 관찰하면서, 어떤 특이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2) 공기어 조사

하나의 어휘가 속해 있는 맥락에서 함께 나타나는 어휘들을 ‘공기어’(cooccurrence)라고 부른다. Zimina(2004: 181-182)에 따르면, 두 어휘가 번역 관계에 있으면, 함께 출현하는 어휘들도 번역 관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공기어 조사는 특정 맥락에서 어휘들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거나, 중의성을 가진 어휘의 번역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시행된다. 공기어 조사를 위해서는 특정 공기 맥락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장이 하나의 공기 맥락 단위가 될 수 있다. 보다 넓은 범위로는 문단을 맥락 단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어휘들 간의 직접적 연관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서로 다른 문장에 속하는 전혀 관련 없는 어휘들이라도 문단 단위 맥락에서는 공기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검색 대상이 병렬코퍼스이기 때문에, 공기어 조사를 위한 기본 맥락은 문장 수준으로 연결된 ‘번역맥락’이다. 아래의 도표는 <정희경01>에서 ‘술’과 ‘포도주’를 기준으로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공기어 목록이다. 공기어들은 코퍼스 내에서의 전체빈도수와 함께, 검색어와 공기하는 맥락수, 공기 맥락에서의 부분빈도수(공기빈도수) 그리고 ‘빈도특이성’¹⁶⁾과 함께 표기된다.¹⁷⁾

-
- 16) 빈도특이성은 코퍼스의 하위부분에서 특이한 빈도적 특성을 보이는 어휘를 통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다(Lebart & Salem 1994: 74). ‘빈도특이성’ 계산은 코퍼스 전체 크기(T), 해당 어휘의 전체빈도수(F), 하위 부분의 크기(t), 하위 부분에서의 어휘의 부분빈도수(f)의 네 가지 변수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이러한 네 가지 변수를 고려하는 것은 코퍼스 내의 하위 부분들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빈도특이성’은 $\pm xx.x$ 로 표기되는데, $xx.x$ 는 계산된 확률값을 가리키며, 만일 다른 부분에 비해 높은 빈도 성향을 보이면 (+)로, 낮은 빈도 성향을 나타내면 (-)로 표기된다(Lafon 1984: 54-68).
- 17) <표 5>의 공기 목록은 명사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 등과 같은 기능어 그리고 술어(동사와 형용사) 등은 제외하였다. 또한 특정 기준을 설정해서 기준에 적합한 어휘들만을 선별할 수 있는데, 현재 목록에서 공기어 선별 기준은 공기빈도 2이상, 빈도특이성 +2 이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현재 기준 이하의 공기어들은 <표5>에서 배제되어 있다.

〈표 5〉 〈정희경01〉에서 ‘술’과 ‘포도주’의 공기어 목록

검색어 : 술					검색어 : 포도주				
어휘	빈도	공기 빈도	빈도 특이성	맥락	어휘	빈도	공기 빈도	빈도 특이성	맥락
포도주	32	5	+4	4	얼굴	25	2	+2	1
맛	3	2	+4	2	잔	32	6	+5	6
집	28	3	+2	3	끝	22	3	+3	3
노을	5	2	+3	2	입	25	2	+2	2
입술	10	3	+4	2	술	33	4	+3	4
여주인	51	5	+3	5	여자	329	14	+3	13
웃음	6	2	+3	1	주문	10	6	+9	6
빛	7	2	+3	2					
병기창	8	2	+3	2					

위 도표에서 보듯이 ‘술’과 ‘포도주’로 구분되는 번역에서 각각의 공기어인 ‘포도주’와 ‘술’을 제외하고는 겹치는 어휘들이 없다. 프랑스어 원문에서 ‘vin’의 공기어는 다음과 같다.

〈표 6〉 ‘vin’의 공기어 목록

검색어 : vin				
어휘	빈도	공기 빈도	빈도 특이성	맥락
sourire	13	2	+2	2
bouche	11	2	+2	2
trait	3	2	+3	2
verre	31	16	+16	16

다음은 <이환69>와 <김인환78>에서 ‘술’의 공기어 목록이다.

<표 7> <이환69>와 <김인환78>에서 ‘술’의 공기어 목록

이환69					김인환78				
어휘	빈도	공기 빈도	빈도 특이성	맥락	어휘	빈도	공기 빈도	빈도 특이성	맥락
잔	28	5	+4	3	배	7	2	+2	1
손님	24	3	+2	3	잔	26	10	+8	9
마담	54	7	+4	7	팔	8	2	+2	1
입술	8	2	+3	2	손님	43	5	+2	5
주문	10	6	+8	6	마담	61	8	+3	8
					입술	8	2	+2	2
					주문	11	9	+11	9

<표 5>-<표 7>을 보면, 검색어 ‘술’의 공기어 목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는 ‘입술’이다. 반면 <정희경01>의 ‘포도주’ 공기어 목록에서는 ‘입술’이 아닌, ‘입’이 나타난다. 프랑스어 ‘vin’의 공기어 목록에서 ‘bouche’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때 ‘bouche’의 전체빈도수는 11이며, ‘vin’과의 공기빈도수는 2이다. 한국어 번역본의 공기어 목록에서 ‘입술’이 ‘bouche’와 비슷한 빈도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희경01>의 ‘포도주’ 공기어 목록에서만 나타나는 ‘입’(F=20)은 전체빈도수에서 ‘입술’(F=10)과 거의 두 배의 빈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입’과 ‘입술’이 구분되어 번역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입’은 <이환69>와 <김인환78>에서는 없는 어휘인가? 두 번역에서 ‘입’은 오히려 매우 높은 빈도를 보이는 어휘이다.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기어 목록(<표 7>)에서는 ‘입’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입’이 앞서 언급한 공기어 선별 기준(공기빈도>2 & 빈도특이성>+2, <각주17> 참조)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입’과 ‘술’의 공기 상황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번역 맥락에서 이들의 공기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⁹⁾

18) <표 3>을 보면, <이환69>에서 ‘입’은 51번 출현하며, <김인환78>에서는 44번 출현한다.

19) 번역 맥락에 포함된 특수 기호들(#, \$, %)은 *mkAlign2*에서 병렬코퍼스 내의 문단(\$), 문장(#), 번역대응(\$)을 인식하기 위한 식별자이다. 분석의 효율을 위해 대문자는 모두 소문자로 변환되어 있다. 한국어 텍스트 경우는 형태소 분석이 되어 있지만, 강

<이환69> - 2번

#sa bouche est desséchée par d'autre faim que rien non plus ne peut apaiser qu'à peine, le vin. \$

그녀의 입은 다른 굶주림으로 바짝 탔으며,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다. # 있다면 겨우 술뿐일까? \$

#le vin coule dans sa bouche pleine d'un nom qu'elle ne prononce pas. \$

그녀가 부르지 않는 이름으로 가득 찬 입 안에 흘러들어간다. \$

<김인환78> -1번

#le vin coule dans sa bouche pleine d'un nom qu'elle ne prononce pas.\$

#술은, 그녀가 정작 부르지는 않았지만, 누구인가의 이름이 뱅뱅 맴도는 그녀의 입 안에 흘러 들어간다. \$

<정희경01> - 1번²⁰⁾

#le vin coule dans sa bouche pleine d'un nom qu'elle ne prononce pas. \$

부르지 못하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입 속으로 포도주가 흘러들어간다. \$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술’과 ‘입’이 함께 출현하는 경우는 <이환69>에서 2번, <김인환78>에서 1번이다. <이환69>의 첫 번째 맥락을 제외하면, 세 번역본 모두 동일한 번역 맥락에서 이 어휘들의 공기가 관찰된다. 한편 <정희경01>에서는 프랑스어 ‘vin’과 ‘입술’이 동시 출현하는 맥락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술’과 ‘입술’의 번역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술’과 ‘입술’

§# 그 여자의 입술은 좀 전에 마신 술 때문에 촉촉했다. # 그 입술은 은은한 노을 빛 아래 가혹하리만치 또렷한 윤곽을 보이고 있었다. \$

§#Sa bouche à lui fut humide d'avoir bu et elle eut à son tour, dans la douce lumière, une implacable précision.

독의 용이함을 위해 형태소 분석이 되지 않은 원형 문장을 첨부한다.

20) <정희경01>에서는 ‘입’과 ‘술’의 공기 맥락은 3개인데, 그 중 2개는 동사 ‘입다’의 어간으로서 확인된다.

§# 안 데바레드는 쉬지 않고 술을 마신다. # 오늘 밤의 포마르주에서는 거리에
서 만난 낯모르는 사내의 입술 같은 건딜 수 없는 맛이 가지지 않는다. \$

§#Anne Desbaresdes boit, et ça ne cesse pas, le Pommard continue d'avoir ce
soir la saveur anéantissante des lèvres inconnues d'un homme de la rue.

‘술’과 ‘입술’의 공기 맥락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원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
맥락에서는 ‘avoir bu’라는 동사구를 ‘술’로 옮기고 있고, 두 번째 맥락에서는
프랑스어 ‘lèvres’가 ‘입술’로 번역되어 있고, ‘술’은 첫 번째 맥락과 마찬가지로
동사 ‘boit’의 번역이다.

3) ‘vin’의 번역평가

앞서 언급한대로, ‘vin’은 <이환69>과 <김인환78>에서는 모두 ‘술’로 번역
되어 있지만, <정희경01>에서는 ‘술’과 ‘포도주’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다. 불
한사전21)은 ‘vin’의 의미를 ‘포도주’ 혹은 ‘술’로 제시하고 있으며, ‘vin’은 프랑
스 술의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포도주’라고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다.22) 반면 한
불사전23)에서 ‘술’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표현으로 ‘alcool’, ‘boisson alcoolique’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24) 그런데 사전에서 예문으로 제시된 표현들의 번역
을 보면, ‘vin’이든 ‘wine’이든 ‘포도주’보다는 ‘술’이 더 일반적이다. 더욱이 프
랑스인에게 있어서 ‘vin’은 가장 대표적인 술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아닌 ‘술’
이라고 번역을 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희경01>의
‘술’과 ‘포도주’로 구분해서 번역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표 4>를 보면, <정희경01>에서의 ‘술’과 ‘포도주’의 빈도 변화 추이를 확
인할 수 있는데, ‘술’은 주로 하위 부분 04/06/0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빈
도수>5)를 보이고, ‘포도주’는 01/05 부분25)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21) 『프라임불한사전』, 정지영·홍재성 편저, 두산동아, 2011.

22) 영한사전에서도 ‘wine’의 첫 번째 의미는 ‘포도주’로 제시되어 있다. 『프라임영한사
전』(두산동아, 2011) 참고.

23) 『새한불사전』, 한국불어불문학회 편저,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8.

24) 한영사전에서는 ‘wine’, ‘liquor’, ‘alcohol’이 ‘술’의 번역어로 나타난다. 『프라임한영
사전』(두산동아, 2011) 참고.

25) 01/05 부분에서는 프랑스어 ‘vin’이 나타나지 않는다.

보이고 있다. 02 부분에서는 ‘술’과 ‘포도주’의 출현 빈도가 <이환69>/<김인환78>과 <정희경01>은 서로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04에서의 ‘vin’은 앞의 두 번역본에서는 모두 ‘술’로 번역되고 있는 반면, <정희경01>은 ‘술’과 ‘포도주’가 거의 대등하게 출현한다. 우리는 이 두 하위 분야 02와 04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어떤 기준에서 후자의 번역이 앞의 두 번역과 다른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다음은 02에서 ‘vin’ 속한 프랑스어 원문 맥락들이며, 각 맥락에서 ‘vin’이 <이환69>, <김인환78>, <정희경01>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를 표시하였다.

- a) §#un verre de vin, demanda-t-elle. \$: 포도주/ 포도주/ 포도주
- b) §#et même je vous demanderai un autre verre de vin. \$: 없음/ 없음/ 없음
- c) §#anne desbaresdes but le deuxième verre de vin d’un trait. \$: 없음/ 없음/ 없음
- d) §#le vin aidant sans doute, le tremblement de la voix avait lui aussi cessé. \$: 술 / 술/ 술
- e) §#il commanda du vin, fit encore un pas vers elle. \$: 술/ 술/ 포도주
- f) §#il était clair qu’elle n’avait pas l’habitude du vin, qu’à cette heure-là de la journée autre chose de bien différent l’occupait en général. \$: 술/ 술/ 술
- g) §#il fit signe à la patronne de les servir à nouveau de vin. \$: 술(잔)/ 술(잔)/ 포도주²⁶⁾
- h) §#elle avala une gorgée de vin, le sourire revint sur son visage et l’obscurcit de nouveau, mais plus avant que tout à l’heure. \$: 술/ 술/ 포도주
- i) §#- je n’aurais pas dû boire tant de vin. \$: 술/ 술/ 술

위 맥락에서 세 번역본들 간의 번역의 차이가 보이는 곳은 e), g) 그리고 h) 부분이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포도주’로 혹은 번역의 부재로 나타난다. b)와 c)

26) 예 g)에서 <이환69>와 <김인환78>은 ‘술잔’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형태소 분석에 의해, ‘술’과 ‘잔’으로 분리되었다. ‘술’과 ‘술잔’은 분명 다른 어휘이다. ‘verre de vin’이 ‘술잔’에 해당하는데, ‘술잔’이 ‘verre’ 혹은 ‘verre de vin’ 어느 쪽에 대응되는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5>에 따르면, <정희경01>에서는 ‘잔’이라는 어휘는 ‘포도주’와 공기 관계에 있지만, ‘술’과는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

맥락에서 ‘vin’은 독립된 어휘가 아닌 ‘verre de vin’이라는 명사구의 한 요소로 보아야 한다. 프랑스어 ‘verre’는 ‘잔(盞)’을 의미한다. 더욱이 맥락상 ‘verre de vin’는 단순히 ‘포도주잔’이 아니라, ‘한 잔의 포도주를 더 주문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번역을 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b) *§#et même je vous demanderai un autre verre de vin.* §

<이환69> §#“한 잔 더 마시고 싶어요.”

<김인환78> §#“한 잔 더 마시고 싶어요.”

<정희경01> §#“그러면 한 잔 더 달라고 해도 되겠네요.”

c) *#anne desbaresdes but le deuxième verre de vin d'un trait.* §

<이환69> #안느 데바레드는 단숨에 두 번째 잔을 비웠다.

<김인환78> #안느 데바레드는 단숨에 두 번째의 잔을 비웠다.

<정희경01> #안느 데바레드는 두 번째 잔을 단숨에 비웠다.

반면, e), g), h)에서 ‘vin’은 <이환69>/<김인환78>에서는 ‘술’로, <정희경01>에서는 ‘포도주’로 번역되어 있다. 『모데라토 칸타빌레』의 2장에 속하는 위 번역 맥락들은 카페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하는 맥락들이다. 첫 번째 번역맥락 a)에서 안느(Anne)²⁷⁾가 포도주 한 잔(un verre de vin)을 주문하고 있다. 한 병의 포도주를 주문해서 계속 잔에 부어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잔’씩 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후의 상황에서 ‘포도주’가 아닌, ‘술’이라고 번역을 해도 맥락상 큰 문제는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e)의 경우는 몇 잔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던 안느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서 포도주를 권하기 위해 다시 주문을 하는 상황과 관련된 맥락이다. 이 경우에는 그냥 ‘술을 주문하다’보다는 ‘포도주를 주문하다’라고 옮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표현일 것이다.

e) *§#il commanda du vin, fit encore un pas vers elle.* §

<이환69> §#남자는 잠자코 술을 주문하고는 그녀에게로 한 발짝 다가섰다.

<김인환78> §#남자는 잠자코 술을 주문하고 나서 부인에게로 한 발짝 다가섰다.

27) 이 문장에서 주어인 ‘elle’은 안느Anne를 가리킨다.

<정희경01> §그는 포도주를 주문하고, 한 발짝 더 여자에게 다가갔다.

g)는 술을 마시다가, 안느가 빈 술잔에 손을 가져가자, 남자가 여주인에게 술을 더 주문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 경우는 어떤 식의 번역이 더 나은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환69>/<김인환78>과 <정희경01>은 다른 선택을 한다. 앞의 두 번역은 ‘술(잔)’으로 의역을 하며, 후자는 ‘포도주’로 직역을 하고 있다.

g) #il fit signe à la patronne de les servir à nouveau de vin. §

<이환69> #남자는 마담에게 그들의 술잔을 채우라고 다시 신호했다.

<김인환78> #남자는 마담에게 그들의 빈 술잔을 채우라고 신호했다.

<정희경01> #그는 카페 여주인에게 포도주를 더 달라는 손짓을 했다.

h)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une gorgée de vin’이 <이환69>/<김인환78>에서는 ‘술 한 모금’으로, <정희경01>에서는 ‘포도주 한 모금’으로 번역되어 있다.

h) §#elle avala une gorgée de vin, le sourire revint sur son visage et l’obscurcit de nouveau, mais plus avant que tout à l’heure. §

<이환69> §#그녀는 술 한 모금을 마셨다. #그녀의 얼굴 위에는 미소가 떠오르는 듯 싶더니 이내 흐려졌다. #조금 전보다도 한결 더 흐렸다.

<김인환78> §#그녀는 또 한 모금 술을 마셨다. #그녀의 얼굴에는 황홀한 미소가 떠오르는가 싶더니 이내 찡그려졌다. #조금 전보다도 훨씬 더 얼굴이 찡그려졌다.

<정희경01> §#그 여자가 포도주를 한 모금 삼키자, 다시금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금세 조금 전보다 훨씬 더 어두운 얼굴이 되었다.

맥락상 h)가 앞의 e)-g)에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vin’을 ‘술’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환69>와 <김인환78>은 ‘vin’의 번역에서 거의 같은 번역 선택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약 10년이라는 출판연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번역본 사이의 영향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물론 ‘vin’이라는 하나의 어휘만을 가지고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일 수 있다. 그렇지만 <표 3>의 어휘색인에서 조차 번역을 위해 사용된 번역어들이 유사한 것을 보면 연도상으로

<김인환78>이 <이환69>를 상당히 참조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정희경01>은 2001년이라는 출판연도를 고려하면 사용된 어휘들이 좀 더 현대적이며, 같은 어휘라도 - 최소한 'vin'의 번역을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 상황에 따라서 다른 번역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2. 여성 관련 어휘 번역 분석

<표 3>의 어휘색인에서 여성과 관련된 어휘로, 프랑스어 어휘색인에서는 고유명사 'Anne'(F=138)를 제외하면,²⁸⁾ 'patronne'(F=47), 'dame'(F=35), 'femme'(F=29), 'mademoiselle'(F=28)이 관찰되고, 번역본에서는 '부인', '마담', '여인', '여자', '(여)주인'이 관찰된다.²⁹⁾ 다양하게 형태의 이들 어휘들의 번역 상관성을 앞서 'vin'과 동일한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1) 어휘 분포 조사

먼저, 병렬코퍼스의 하위 부분에 따라서 각 어휘들의 빈도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28) 고유명사 'anne'는 세 번역본에서 '안느' 혹은 '안'이라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한다. 물론 'anne'가 3인칭 여성 주어 'elle' 혹은 'femme'와 같은 보통 명사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원문과 번역본 사이에 빈도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색인(<표 3>)을 보면, 'anne'(F=138)는 <이환69> '안느'(F=137), <김인환78> '안느'(F=141), <정희경01> '안'(F=180)처럼 후자의 번역본을 제외하면 거의 같은 빈도를 보인다. 따라서 고유명사 'anne'은 다른 대체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안느'라고 번역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정희경01>의 '안'은 부사 '아니'의 준말과 동일한 형태로 되어 이것의 빈도수와 합산되어 계산되어 있다. 그런데 안느의 성(姓)인 Desbardes의 경우, <정희경01>에서 '데바레드'(F=144)와 'desbardes'(F=148)의 빈도수가 거의 비슷한 점을 보면, 이 번역본에서도 'anne'의 번역이 앞서 두 번역본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9) 어휘색인에서 프랑스어 'mère'와 한국어 '어머니'와 '엄마'가 있지만, 고유명사 'anne'와 마찬가지로 다른 번역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외한다. 물론 빈도수의 관점에서 보면, <이환69>의 '어머니'(F=28)에 비해, <김인환78>의 '어머니'(F=42)와 <정희경01>의 '엄마'(F=57)의 빈도수가 'mère'(F=2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8〉 『모데라토 칸타빌레』에서 여성 관련 어휘들의 부분빈도수

	어휘	0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프랑스어	patronne	4	16	10	4	3	3	0	7	47
	dame	32	0	0	0	3	0	0	0	35
	femme	9	4	1	3	2	5	3	2	29
	mademoiselle	2	3	1	0	20	0	1	1	28
이환69	부인	8	9	5	12	19	9	3	2	67
	마담	4	17	12	5	4	3	0	9	54
	여인	8	1	0	1	3	6	16	4	39
	주인	4	11	9	4	2	3	0	4	37
	여자	2	6	14	3	0	10	0	1	36
김인환78	부인	12	23	8	13	22	12	5	5	100
	마담	4	18	15	5	4	4	0	11	61
	주인	4	11	9	4	2	3	0	7	40
	여자	2	7	14	3	0	12	0	1	39
	여인	8	1	0	1	1	5	16	4	36
정회경01	여자	15	54	49	49	10	51	58	58	329
	부인	6	8	9	12	11	6	2	2	56
	여주인	4	17	12	4	3	3	0	0	51

〈표 8〉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특징 중 하나는 <김인환78>에서의 ‘부인’(F=100)과 <정회경01>에서의 ‘여자’(F=329)의 빈도수가 관련 프랑스어 어휘들의 빈도수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 ‘dame’와 ‘femme’가 모두 ‘부인’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두 어휘의 총빈도수(F=64)보다도 높다. 이것은 다른 한국어 번역어들을 고려하면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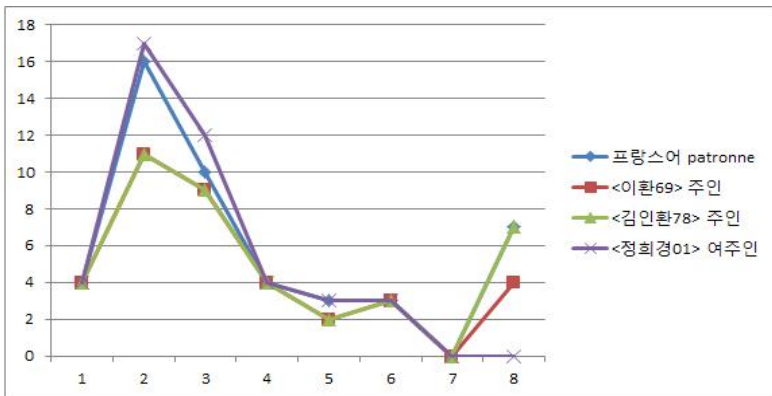
먼저, ‘dame’의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주로 01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부인’은 전 부분에 걸쳐 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것은 ‘부인’이 의미상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가리키는 ‘부인’(夫人)이 아닌, 예를 들어, 동사 ‘부인하다’의 어간 ‘부인’(否認)과 같이 ‘femme’ 혹은 ‘dame’의 번역이 아닌 전혀 다른 어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직접 참고해야만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이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다른 어휘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표 8>의 분포도에서 가장 명확한 부분은 바로 ‘patronne’와 이 어휘의 한국어 번역어인 ‘(여)주인’이다. ‘전체빈도수에 있어서도 ‘(여)주인’ 모든 번역본에서 커다란 빈도차이 없이 프랑스어 ‘patronne’의 빈도 변화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프랑스 어휘가 다른 한국어 어휘로 번역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정희경01>은 프랑스어 ‘patronne’를 ‘여주인’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patron’/‘patronne’라는 프랑스어 명사의 성(性)의 대비를 고려하면, ‘주인’보다는 ‘여주인’이 좀 더 나은 번역일 수 있다. 이 어휘의 빈도수에 있어서도 <이환69>/<김인환78>은 코퍼스 하위 부분 전체에 걸쳐 거의 같은 변화를 보이는데 반해, <정희경01>의 경우 08 부분에서는 ‘여주인’이 전혀 출현하지 않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patronne’와 ‘(여)주인’의 빈도 변화



한편 나머지 어휘 ‘dame’와 ‘femme’ 그리고 ‘mademoiselle’과 ‘마담’, ‘여인’, ‘여자’의 번역 관계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희경01>에서는 ‘부인’을 제외하면, ‘여자’(F=329)만이 나타나는데, 빈도수도 매우 높다. 01과 05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여자’는 평균적으로 50여회의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김인환78>의 ‘부인’과 마찬가지로 특이한 현상으로 보인다. 우선, ‘dame’와 ‘femme’ 그리고 ‘mademoiselle’을 중심으로 함께 출현하는 어휘들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2) 공기어 조사

‘Vin’의 경우는 번역 맥락을 검색 단위로 공기어 조사를 실행하였다면, 여기서의 의미적으로 좀 더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서 문장을 검색 기준 맥락으로 설정할 것이다. 한 문장 내에서 함께 출현하는 어휘들을 검색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맥락적인 연관성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프랑스어 ‘dame’, ‘femme’, ‘mademoiselle’과 한국어 번역본에서 ‘마담’, ‘여인’, ‘여자’의 공기어 목록이다.

<표 9> 프랑스어 ‘dame’, ‘femme’, ‘mademoiselle’의 공기어 목록

검색어	공기 어휘	빈도	공기 빈도	빈도 특이성	맥락
dame	clavier	9	3	+4	3
	crayon	6	3	+4	3
	bémol	2	2	+4	2
	clef	2	2	+4	2
	madame	14	2	+2	2
femme	homme	67	5	+2	5
	corps	10	2	+2	2
mademoiselle	giraud	28	28	+47	28
	leçons	9	3	+4	4
	garçon	5	3	+4	3
	crayon	6	2	+3	2
	piano	27	3	+2	3
	madame	14	2	+2	2
	clavier	9	2	+2	2
	bras	8	2	+2	2

〈표 10〉 '마담', '여인', '여자'의 공기어 목록

	검색어	공기 어휘	빈도	공기 빈도	빈도 특이성	백락
이환69	마담	주인	37	37	+50	37
		뜨개질	9	8	+11	8
		카운터	26	8	+6	8
		컵	10	5	+5	5
		정돈	3	3	+5	3
		술	45	8	+4	7
		라디오	10	3	+3	3
		태도	4	2	+3	2
	여인	사나이	56	6	+3	6
		팔	9	3	+3	2
	여자	원한	2	2	+4	2
		생각	57	5	+3	5
		남자	31	3	+2	3
김인환78	마담	주인	40	40	+50	40
		뜨개질	10	9	+12	9
		카운터	28	9	+7	9
		컵	10	6	+7	6
		라디오	11	5	+5	5
		술	60	9	+4	8
		이야기	18	3	+2	3
		바퀴	5	2	+2	2
	여자	사내	33	13	+13	13
		생각	51	5	+3	5
		방학	2	2	+4	2
	여인	음식	5	2	+3	2
		사내	33	4	+2	4
		아들	14	2	+2	2
		향기	11	2	+2	2
요리		10	2	+2	2	

먼저, 프랑스어 ‘dame’는 주로 ‘clavier’(건반), ‘crayon’(연필), ‘bémol’(반음 내림표) 등과 함께 출현하며, 대부분 01 부분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모테라토 칸타빌레』의 제1장에 해당하는 하위 부분 01이 안느 아들의 피아노 교육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 ‘dame’는 일반 여인이 아닌, 피아노 선생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표 3>의 어휘색인을 보면, ‘선생’이 <이환69>에서는 33번, <김인환78>에서는 48번 그리고 <정희경 01>에서는 71번 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ame’의 빈도수가 35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dame’와 ‘선생’의 번역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선생’의 출현은 모든 번역본에서 01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정희경01>에서는 05 부분에서의 빈도($f=28$)가 상당히 높는데, 이것이 다른 번역본과 달리 ‘선생’의 전체빈도수($F=71$)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표 11> ‘dame’와 ‘선생’의 빈도 변화

		0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프랑스어	dame	32	0	0	0	3	0	0	0	35
이환69	선생	29	0	0	0	2	2	0	0	33
김인환78	선생	32	1	2	0	11	4	1	0	48
정희경01	선생	35	3	1	0	28	2	1	1	71

05 부분에서 프랑스어 ‘dame’는 단지 3번만 나타나기 때문에 <정희경01>은 다른 어휘를 ‘선생’으로 옮긴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표 9>의 ‘mademoiselle’의 공기어를 보면, ‘dame’와 상당한 유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어휘도 ‘clavier’, ‘piano’, ‘leçons’과 같이 피아노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어휘들과 공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 어휘의 부분빈도수 변화를 보면, 05 부분에서 높은 빈도수($f=20$)를 보이고 있다(<표 8>참조). 만일 공기어 목록만을 고려해서 ‘mademoiselle’도 ‘선생’과 연관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정희경01>에서 05 부분에서의 ‘선생’의 높은 부분 빈도가 설명이 된다.

한편 한국어 ‘마담’은 ‘주인’, ‘술’, ‘카운터’ 등의 공기어로 보아(<표 10>), 앞에서 ‘vin’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주인공 안느가 카페에 있는 상황을 묘사한

맥락과의 연관성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표 8>에서 ‘마담’의 빈도 변화를 보면, 이 어휘의 빈도 변화가 ‘주인’과 프랑스어 ‘patronne’의 빈도 변화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표 10>의 공기어 목록을 보면 <이환69>/<김인환78> 모두에서 ‘주인’의 전체빈도수와 공기빈도수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곧 ‘주인’이 코퍼스 전체에 걸쳐 ‘마담’이 속한 번역 맥락에서만 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해당 맥락을 살펴보면, ‘주인 마담’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두 번역본이 ‘patronne’를 ‘주인 마담’이라고 옮기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주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정희경01>과 차이가 나는 두 번역본의 문체적인 특징을 엿볼 수 있다.

한편 ‘femme’와 ‘여자’ 그리고 ‘여인’은 현재의 공기어 목록에서는 뚜렷한 차별성을 찾기는 힘든 것 같다. 프랑스어 ‘femme’는 ‘homme’와 ‘corps’와 공기 관계에 놓이며, <이환69>와 <김인환78>에서 ‘여자’와 ‘여인’은 서로 차별화되는 공기어들을 찾기가 힘들다. 이런 점에서 <정희경01>은 ‘dame’와 ‘mademoiselle’을 제외하고, 여타의 어휘들을 특별한 구분 없이 ‘여자’로 옮긴 것 같다.

3) 맥락 분석

앞서 어휘 분포 및 공기어 목록을 살펴면서, ‘부인’과 ‘선생’과 관련해서 번역의 의문점을 제기하였는데, 맥락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면서 이 어휘들의 정확한 번역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 ‘부인’

<김인환78>에서 ‘부인’(F=100)은 다른 여성 관련 어휘뿐만 아니라, 다른 두 번역본에 비해서도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분빈도수 변화도 다른 두 번역본에서는 04-05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높는데 반해, <김인환78>에서는 02와 05부분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김인환78> 02 부분에서 ‘부인’이 나타나는 번역 맥락에서의 프랑스어 원문을 살펴보자. 이 부분에서 ‘부인’은 총 23번, 다시 말해서 23개의 번역 맥락이 관찰된다. 여기서 ‘부인’은 맥락상 카페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안느를 가

리킨다. 그런데 놀랍게도 23개의 번역맥락 중 프랑스어 원문에서 ‘부인’의 의미로 보통명사를 사용한 맥락은 단 3군데뿐이다(‘femme’ 2번, ‘madame’ 1번). 나머지 맥락은 모두 인칭대명사 ‘vous’ 혹은 묵시적으로 함축된 표현(예를 들어, ‘la main’이 ‘부인의 손’으로 번역)을 ‘부인’으로 옮기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la main chercha le verre, machinalement. §

<김인환78> §#부인의 손은 기계적으로 술잔을 찾았다.

<이환69> §#손은 기계적으로 술잔을 찾았다.

<정희경01> §#손이 무의식적으로 잔을 찾았다.

b) §#l’homme n’acquiesça pas. §

<김인환78> §#남자는 부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환69> §#남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희경01> §#남자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c) §#- vous avez une belle maison au bout du boulevard de la mer. §

<김인환78> §#부인은 라 메르 가 끝 편에 자리한 아름다운 집에 살고 계시지요?

<이환69> §#부인은 라메르 가 끝에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계시죠?

<정희경01> §#부인께선 라메르 가 끝에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계시죠.

c)에서는 원문의 주어 ‘vous’를 세 번씩 모두 ‘부인’으로 옮기고 있다. 그런데 a)와 c)에서는 ‘la main’이 <김인환78>에서는 ‘부인의 손’으로 나머지 두 번씩은 단순히 ‘손’으로 번역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반드시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가 충분히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과잉 번역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b)도 원문에서 목적어 없이 간결하게 표현된 문장에 굳이 ‘부인’이라는 표현을 부가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 ‘mademoiselle’과 ‘선생’

마지막으로 ‘mademoiselle’의 맥락을 살펴보자. 번역본에서 ‘선생’은 프랑스

어 원문에서 ‘dame’의 빈도 변화를 따른다는 것을 앞 장의 공기어 분석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정희경01>은 다른 두 번역본에 비해 ‘선생’(F=71)의 빈도수가 높고, 특히 05 부분에서 ‘dame’가 단 3번 출현함에도 불구하고, ‘선생’(f=28)의 부분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mademoiselle’이 05에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어휘와 ‘선생’의 연관성을 예상하였다. 05에서의 번역 맥락을 통해서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 다음은 <정희경05>에서 ‘mademoiselle’과 ‘선생’이 동시에 존재하는 맥락을 탐색한 결과이다.³⁰⁾

<표 12> ‘mademoiselle’과 ‘선생’의 공기 맥락 분포

	+mademoiselle/ +선생	+mademoiselle/ -선생	-mademoiselle/ +선생
<정희경01> 05	20	0	7

<표 12>는 ‘mademoiselle’과 ‘선생’의 번역 연관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05에서 ‘선생’이 존재하는 번역 맥락에서는 7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mademoiselle’이 출현하고 있으며, 반대로 ‘선생’이 존재하지 않는 맥락에서 ‘mademoiselle’이 존재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¹⁾ 따라서 『모데라토 칸타빌레』에서는 ‘mademoiselle’도 ‘dame’와 마찬가지로 ‘선생’을 지칭하는 어휘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a) #**mademoiselle** giraud croisa les bras, le regarda en soupirant. \$
 <정희경01> §#지로 **선생**은 팔짱을 끼고, 한숨을 내쉬며 아이를 쳐다보았다.
 <이환69> §#지로 **양**은 팔짱을 끼고 한숨지으면서 소년을 쳐다보았다.
 <김인환78> §#지로 **양**은 팔짱을 끼고 한숨지으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소년을 쳐다보았다.

30) <표 11>에서 (+)기호는 해당 어휘가 번역맥락에서 존재함을 의미하고, (-)는 해당 어휘의 부재를 가리킨다.
 31) ‘-mademoiselle/+선생’의 맥락에서도 3번은 ‘dame’가 확인되며, 나머지는 대명사로 대체되어 있다.

- b) #un grand calme s'empara de mademoiselle giraud. \$
 <정희경01> #지로 **선생**은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다.
 <이환69> #지로 **양**은 태연해졌다.
 <김인환78> #지로 **양**은 태연했다.

위 두 예에서 보듯이 'mademoiselle'이 <이환69>와 <김인환78>에서는 '양'(嬢)으로 옮겨져 있다. 'mademoiselle'이 미혼의 젊은 여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양'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자신의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양'보다는 '선생'이 더 적절할 것이다. 물론 두 번역본의 출판연도를 고려하면 납득이 가는 표현이지만, 지금은 이러한 표현이 조금 어색한 것 같다. <김인환78>은 이 경우에도 <이환69>의 번역을 답습하고 있는데, 'mademoiselle'뿐만 아니라, 전체 표현 자체도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두 번역본 사이의 영향관계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정희경01>은 출판시기에 비추어 조금 더 현재화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vin'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동일한 어휘도 상황에 맞게 적합하게 번역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5. 결론

국내 외국문학 수용의 오랜 역사에 비해,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은 중역과 번안 그리고 오역이라는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외국문학의 번역서를 읽는 연구자들과 일반 독자들은 본의 아니게 번역본의 품질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여전히 번역의 품질에 대한 논란 해소와 번역 관행의 개선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영미문학연구회와 고려대 번역평가연구단은 국내외의 수많은 영미명작 및 프랑스 명작의 한국어 번역텍스트들을 검토하여, 양질의 번역물들을 찾아내고 문제된 번역들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하기위한 번역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애썼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번역학에서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는 '병렬코퍼스'를 번역본들의 평가 작업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프랑스 소설 『모데라토 칸타빌레』와 한국어 번역본 3종을 가지고 통계 기법(빈도수, 어휘색인, 공기어 탐색, 맥락 분석)을 활용한 계량적 차원에서 어휘들의 번역 양상을 탐색하고, 이들 3종의 번역본들이 보이는 번역 방식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원문과 번역본들에서 빈도수가 높은 명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2종의 번역물(<이환69>, <김인환78>)이 번역 방식과 어휘들에서 상당한 유사점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정희경01>에서는 앞서의 두 번역본보다 상황에 따라 좀 더 섬세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계량적 수치들이 언어의 실질적 의미를 완벽하게 표상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각각의 빈도수 및 확률값은 어디까지나 의미를 가진 어휘가 아닌, 형식적 차원의 어휘들을 대상으로 실행된 계산에서 도출된 것이며, 구체적인 번역 방식은 실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의 방법론을 좀 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텍스트 전체 어휘들에 대해서 동일한 분석을 실행해야 할 것이며,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어구들의 번역 방식도 탐색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다양한 번역 연구의 결과물들과 본 작업의 결과물을 상호 비교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학 및 언어학에서 코퍼스 활용의 주목적이 이론의 검증에 관한 실증적인 예를 추출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면, 번역 연구자들이 번역 텍스트의 면밀하고 섬세한 분석을 통해 번역 품질 평가 및 각 번역본들의 영향 관계를 살펴볼 때, 선행 작업으로 통계 기법에 의해 코퍼스로부터 추출된 자료들은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성희 (2000) 「텍스트성과 번역 전환: 영한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 93-118.
- 김명관 (2007) 「불한 병렬코퍼스 구축과 활용」, 『한국프랑스학논집』 58: 1-18.
- 김정우 (2011) 「한국어 번역문의 중간언어적 특성」, 『번역학연구』 12(1): 75-122.
- 김화영 (2011) 「문학작품과 번역 일기: 뒤라스의 『모데라토 칸타빌레』를 중심

- 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2: 119-161.
- 김혜영 · 고여림 · 김지은 · 이영훈 (2010a) 「비교 코퍼스에 기반한 불한 번역 문학의 격식성 연구」, 『번역학연구』 11(3): 93-120.
- 김혜영 · 이영훈 · 고경은 · 김태준 · 이은정 · 조혜란 · 최현아 (2010b) 「비교코퍼스에 기반한 불한번역 문학텍스트의 언어적 특성 연구」, 『번역학연구』 11(1): 161-190.
- 박기성 역 (2009) 『대조 언어학과 번역학의 코퍼스 기반 방법론 연구』, 서울: 동인.(Sylviane Granger, Jacques Lerot & Stephanie Petch-Tyson (2003) *Corpus-based Approaches to Contrastive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 New York: Rodopi.)
- 안동환 역 (2008) 『코퍼스기반 번역학: 이론, 연구결과, 응용』, 서울: 동인.(Sara Laviosa (2002)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ory, Findings, Applications*, Amsterdam & New York: Rodopi.)
- 윤애선 (2002) 「불-한 이중어정보 자동처리를 위한 언어관계 분석(1): 말뭉치를 이용한 불어 연어의 추출」, 『불어불문학연구』 50: 725-754.
- 이영옥 (2000) 「한국어와 영어 간 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 수동구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 47-76.
- 이영훈 (2010) 「프랑스 명작소설 한국어 번역 연구를 위한 번역평가 시스템 개발」, 『통역과 번역』 12(2): 149-179.
- 조준형 (2011) 「병렬코퍼스와 텍스트어휘측정법」, 『언어정보』 12: 85-109.
- Baker, Mona (1995) 'Corpora in Translation Studies: An Overview and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Target* 7(2): 223-243.
- Cho, Joon-Hyung (2010) *Analyse textométrique des corpus parallèles français-coréens*,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Paris 3.
- Erjavec, Tomaž (2004) 'MULTEXT-East Version 3: Multilingual Morphosyntactic Specifications, Lexicons and Corpora',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guage Resources and Evaluation (LREC'2004)*, 26-28 Mai 2004.
- Guiraud, Pierre (1960) *Problèmes et méthodes de la statistique linguistique*. Paris: PUF.

- Ide, Nancy & Jean Véronis (1994) 'MULTEXT (Multilingual Tools and Corpora)', *Proceedings of the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COLING'94)*, Kyoto, Japan, 588-592.
- Lebart, Ludovic & André Salem (1994) *Statistique Textuelle*, Paris: Dunod.
- Salkie, Raphael (2000) 'Quelques questions méthodologiques dans l'exploitation des corpus multilingues', In Mireille Bilger (Éd.), *Corpus : Méthodologie et applications linguistiques*, Paris: Honoré Champion, 180-195.
- Véronis, Jean & Philippe Langlais (2000) 'Evaluation of parallel text alignment systems', In Jean VÉRONIS (Éd.), *Parallel Text Processing : Alignment and Use of Translation Corpora*, Dordrecht / Boston /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369-388.
- Zimina, Maria (2004) *Approches quantitatives de l'extraction de ressources traductionnelles à partir de corpus parallèles*,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Paris III.

<분석 코퍼스>

- Duras, Marguerite (1958) *Moderato Cantabile*, Paris: Editions de Minuit, Collection «Double».
- 이환 역 (1969) 『모데라토 칸타빌레』, 서울: 계몽사, 346-405.
- 김인환 역 (1978) 『모데라토 칸타빌레』, 서울: 삼성출판사, 386-439.
- 정희경 역 (2001) 『모데라토 칸타빌레』, 서울: 문학과지성사, 1-140.

<분석도구>

mkAlign2 : [<http://www.tal.univ-paris3.fr/mkAlign/>]

[Abstract]

**A Corpus-based Study on Translation Evaluation:
Focused on High Frequency Nouns in Korean Translations
of the French Novel *Moderato Cantabile***

Cho, Joon-Hyung · Yi, Yeong-Houn · Kye, Myunghoon · Ko, Ryo Rim ·
Kim, Bohyun · Kim, Ji Eun · Yi, Sang In
(Korea University)

Ever since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the French novel Jules Verne's *A Journey to the Center of the Earth* in 1907, many French novels have been translated to Korean. However, the Korean translations were performed from the Japanese versions or other language versions, and not directly from French. Therefore, a number of adaptations and mistranslations were found when we compared them with the original French text. In addition, today's Korean translations carried over the same problems issued from the previous texts. In order to help solve this problem and to find correct translations, the researchers of this paper took an interest in the elaboration of the criteria for the translation evaluation.

In this sen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llustrate a corpus-based research for translation evaluation. Most translation studies using a parallel corpus or a comparative corpus focus on the explication of the linguistic traits between two languages. However, by comparing three Korean translations of the French novel *Moderato Cantabile* published at different times, we tried to examine their translation strategy.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statistical analyses (lexical frequency, co-occurrence information, contextual analysis), we could find out the characteristic of these Korean translations by comparing lexical elements.

Although we aimed to analyze high frequency nouns in the paper, the statistical method which we used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translation evaluation by referring to it as a precedent analysis before conducting an in-depth study.

▶ Key Words: translation evaluation, parallel corpus, textometry, statistical analysis

조준형(제1저자)

고려대학교 번역과레토릭연구소 연구교수

chojh4net@gmail.com

관심분야: 코퍼스번역학, 번역평가

이영훈(교신저자)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erasme@korea.ac.kr

관심분야: 번역평가, 번역수사학

계명훈(공동저자)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석사과정

myunghoon.kye@gmail.com

관심분야: 프랑스 희곡, 리듬분석

고여림(공동저자)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석사과정

oscar1004@korea.ac.kr

관심분야: 17세기 프랑스 시, 비교문학

김보현(공동저자)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석사과정

cotoncoton@gmail.com

관심분야: 20세기 마그레브지역 소설, 20세기 프랑스 소설

김지은(공동저자)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석사과정

irisnation@hanmail.net

관심분야: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문학, 프랑스 산문

이상인(공동저자)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석사과정

teastick@naver.com

관심분야: 20세기 프랑스 소설, 프랑스 산문

논문투고일: 2011년 07월 29일

심사완료일: 2011년 09월 02일

게재확정일: 2011년 09월 09일